

# A case of Mixed hepatocellular-Cholangiocarcinoma with progressive rising of serum AFP despite undetectable mass on imaging studies for 4 years.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sup>1</sup>, 외과<sup>2</sup>, 영상의학과<sup>3</sup>, 병리과<sup>4</sup>

\*최현철<sup>1</sup> · 정숙향<sup>1</sup> · 이상협<sup>1</sup> · 김진욱<sup>1</sup> · 한호성<sup>2</sup> · 윤유석<sup>2</sup> · 김영훈<sup>3</sup> · 이경호<sup>3</sup> · 김혜령<sup>4</sup>

**서론 :** 혼합 간세포-담관상피암(Mixed hepatocellular-Cholangiocarcinoma)은 간세포암과 담관상피암의 두가지 세포암종이 동일 종양내에 혼합되어 있거나 간 내에 같이 존재하는 경우로 매우 드문 원발성 간암종이다. 저자들은 증상이 없는 46세 남자에서 혈청 태아단백(alpha-fetoprotein, AFP)이 4년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지만 다양한 영상검사에서 진단할수 없었다가 암의 담도침범이 진행되면서 담도확장소견이 나타나 암을 의심하고 복강경 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후 병리검사로써 확진된 혼합 간세포-담관상피암 1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46세 남자가 증상은 없으나 2003년 5월 검진상 발견되었고 2005년 6월까지 지속된 혈청 AFP 상승(410~1237ng/mL)을 주소로 2005년 6월 본원에 내원하였다. 2003년 이후 여러번 초음파 및 CT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이 없다고 들었다. 내원당시 이학적 소견상 정상이었고 검사실 소견상 CBC, LFT는 모두 정상이었으며 HBsAg/HBsAb(-/+), Anti-HCV(-)였으며 AFP: 1011ng/mL, CEA: 2.2ng/mL(0~5ng/mL), CA19-9: 7.0ng/mL(0~27ng/mL)이었다. Liver CT, 초음파, 위와 대장 내시경검사, 비뇨기와 진찰 및 교환초음파, 양성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모두 음성이었다. AFP의 추적검사결과 2005년 20월(1790ng/ml), 2006년 1월(2000ng/ml), 2006년 9월(3409ng/ml), 2006년 11월(3567ng/ml), 2007년 5월(6540ng/ml)이었다. 2년간 추적하면서 총 4회의 CT, 2회의 초음파검사, 1회의 PET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정상소견이었다. 2007년 5월 liver CT상 간좌엽 간내담도의 미세한 확장이 관찰되었고 자기공명담도촬영상 담도내 충만결손 및 담도확장소견이 보여 복강경 간좌엽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소견상 간의 좌엽에 크기 10cmX4cmX2cm에 달하는 침윤성 종괴가 좌측담관, 좌측 문맥과 간정맥의 침범을 보였다. 병리소견상 종괴의 일부에서 담관상피세포의 이형성과 경화성 기질이, 다른 일부에서는 호산성의 세포질과 난원형 핵을 가진 종양세포가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면역조직화학염색상 Cytokeratin7(+), Cytokeratin20(-), AFP(+)으로 혼합 간세포-담관상피암으로 진단하였다. 기저 간강태는 경도의 지방간을 동반하는 간경변증이 관찰되었다. **고찰:** 혼합 간세포-담관상피암은 일반적으로 임상양상이 담관상피암보다는 간세포암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저자 등은 증상없이 4년간 AFP의 지속상승을 보였지만 다양한 영상검사에서 종괴를 찾을수 없다가 4년째에 미세한 담관확장으로 암을 의심하고 수술하였으나 이미 진행된 단계의 혼합 간세포-담관상피암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간세포 암 환자에서 경동맥화학색전술 후에 발생한 급성 췌장염 1예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황호인 · 염상민 · 이석 · 윤경원 · 조석 · 박형천 · 조성범 · 박선영 · 이완식 · 박창환 · 주영은 · 김현수 · 최성규 · 유종선

**배경 및 목적 :** 경동맥화학색전술은 수술절제가 불가능한 간세포암종의 효과적인 고식적 치료중 하나이다.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경동맥화학색전술 후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췌장과 연관된 합병증은 아주 드물다. 저자들은 경동맥 화학색전술 후에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급성 췌장염을 진단하고 고식적 치료 후 호전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57세 여자 환자가 간세포암종으로 6번째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위해 내원하였다. 우측 간엽에 약 5 cm 크기의 간세포암종이 관찰되어 우측 간동맥을 선택하여 리파이돌을 2cc 주입한 후 우측 아래가로막동맥(right inferior phrenic artery)를 정밀 선택하여 화학색전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4일째 누운 자세에서 악화되고 등으로 방사되는 상복부 통증 및 발열을 호소하였으며, 혈액검사에서도 아밀라아제 920 IU/L, 지질분해효소 275 IU/L로 증가되고 복부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췌장 주위에 액체 집적이 관찰되어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하였다. 환자는 고식적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고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 **결론 :**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경동맥화학색전술 후 드물지만 색전 물질 등의 역류 및 허혈 손상으로 급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